

스웨덴 통신시장 현황

김 대 건*

1. 개요

OECD가 발표한 'ECED 브로드밴드 통계'에 의하면 스웨덴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98%로 34개 회원국 중 100%를 초과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스웨덴은 최근까지 ICT 발전지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정보통신 인프라 및 이용 측면에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 나타나는 통신시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ICT 변화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통신시장의 규제기관인 PTS(The Swedish Post and Telecom Agency)는 통신산업 전반을 규제·감독하고, 시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목적의 일환으로 PTS는 통신시장 현황 및 시장분석 보고서를 매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2년 PTS 보고서 'The Swedish Telecommunications Market'의 주요 내용을 매출,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가계통신비, 통화량 등의 소분류 통계지표를 기준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스웨덴 통신시장의 주요 변화를 살펴 보면서 스웨덴 통신시장 현황 및 주요 변화가 함축하는 바를 결어에서 정리하였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원, (02)570-4059, dgkim@kisd.re.kr

2. 스웨덴 통신시장 개관

(1) 매출

2011년 스웨덴 통신시장에서의 소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526억 크로나¹⁾이다. 매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모바일 데이터 매출이 전년 대비 16억 크로나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표 1〉 소매시장 총매출액

(단위: 백만 크로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매시장 총매출액	49,000	49,828	49,788	50,481	51,967	52,640

세부 서비스 유형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유선전화의 매출은 2010년 144억 크로나에서 2011년에는 10% 감소한 130억 크로나를 기록하였다. 반면, 인터넷전화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5억 크로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PTS는 이와 같은 유선전화의 매출 감소와 인터넷전화 매출 증가를 유선·인터넷전화 대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2〉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매출액

(단위: 백만 크로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유선전화	19,605	18,116	16,322	15,573	14,442	13,017
인터넷전화	629	754	1,162	1,349	1,391	1,526

2011년도 이동전화시장의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성장한 262억 크로나이다.

1) SEK, 스웨덴 화폐

〈표 3〉 이동전화 매출액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백만 크로나)	17,262	19,236	20,381	21,661	24,261	26,218
1인당 월평균 수익(크로나)	154	163	162	159	165	168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데이터, 음성전화, SMS, MMS와 같은 모든 이동전화의 세부 서비스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그중 모바일 데이터 매출은 58억 크로나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의 42억 크로나에서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된 모바일 데이터 매출은 어느새 이동전화시장에서 22%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동전화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음성전화와 SMS 매출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와 3%씩 성장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MMS는 전년 대비 13% 성장하였지만 이동전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바일 데이터 매출액

(단위: 백만 크로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모바일데이터 매출액	602	965	1,704	2,696	4,205	5,829

(2) 가입자 수와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유선전화 가입자는 매년 감소를 거듭하여 2012년의 가입자 수는 1999년의 가입자 수의 절반 정도인 30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유·무선 대체 현상과 더불어 유선·인터넷전화 대체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전화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 가입자가 5년 사이에 3배 가량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총 131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그 증가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관찰되어 향후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1년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는 1,338만 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 대비 70만 명의 순증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거의 6% 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한 스웨덴 전체 인구가 91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포화치가 1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유선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스웨덴 국민들의 통화 유형이 이동전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스웨덴은 2009년 말에 세계 최초로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LTE 가입자가 2010년 5천 명에서 2011년 3만 명으로 증가하여 아직까지는 이동전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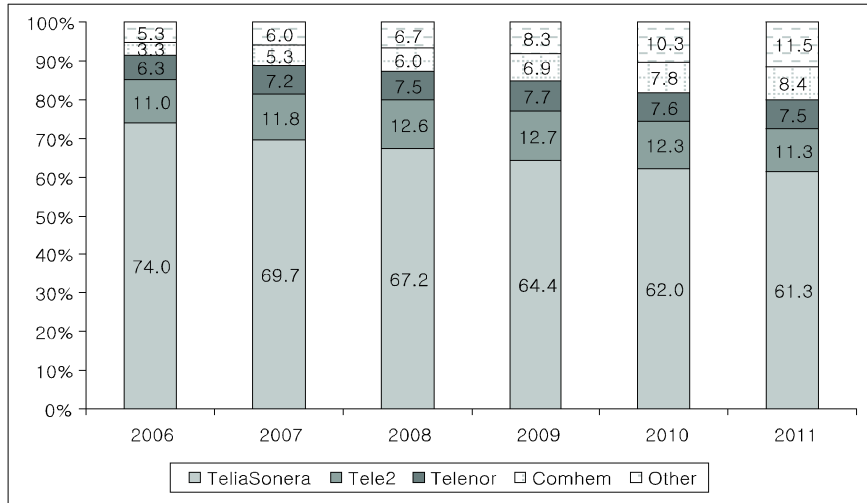
〈표 5〉 서비스별 가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유선전화	4,922	4,644	4,338	3,922	3,469	3,066
인터넷전화	406	617	750	966	1,160	1,316
이동전화	9,607	10,117	10,892	11,750	12,692	13,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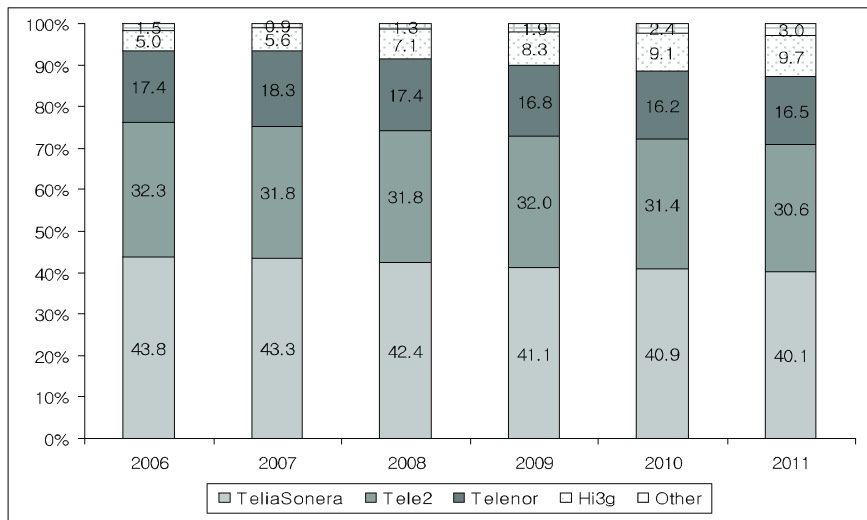
유선전화 및 인터넷전화 시장에서의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2011년 기준 Telia-Sonera(61.3%), Tele2(11.3%), Telenor(7.5%)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까지 74%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던 TeliaSonera는 2005년을 기점으로 점차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유선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별 시장점유율(가입자 수 기준)



사업자별 2011년 이동전화 가입자 수 점유율은 TeliaSonera(40.1%), Tele2(30.6%), Telenor(16.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이동전화 사업자별 시장점유율(가입자 수 기준)



(3) 가계통신비

스웨덴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571크로나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선전화 가입자의 감소와 더불어 유선전화 가계통신비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약 141크로나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가계통신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 정도 증가하여 각각 203크로나, 124크로나를 기록했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은 20크로나 증가하여 66크로나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지출이 전체 가계통신비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월평균 가계 통신비

(단위: 크로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월평균 가계 통신비	531	553	561	558	567	571

3. 주요 변화

(1) 모바일 브로드밴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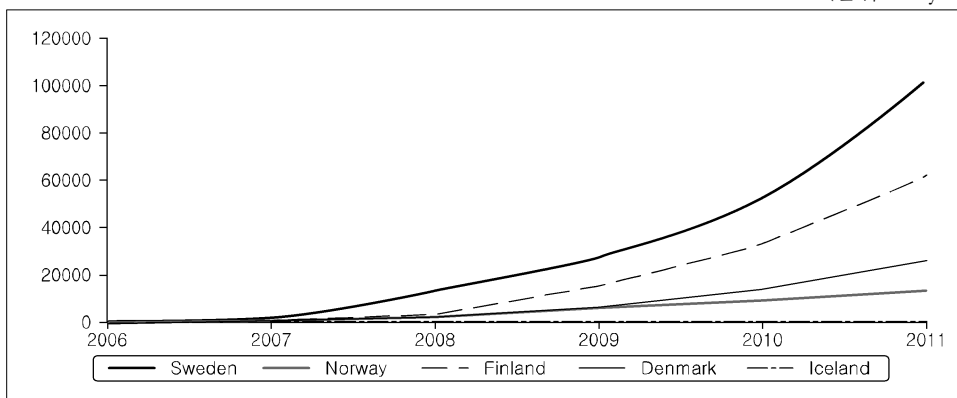
2011년 스웨덴 통신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증가에 따른 트래픽과 수익의 급증을 꼽을 수 있다. 2011년에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가 52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1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가입자의 급증을 이끈 가장 큰 요인으로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기존에 피쳐폰을 사용하던 가입자들이 2009년을 기점으로 대거 스마트폰 시장으로 유입되었으며, 동시에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전화망에서 발생된 데이터 트래픽은 2010년에 53,000TB에서 2011년에는 90% 증가한 110,000TB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매년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북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전기 대비 각각 41%, 44% 증가하였으며, 덴마크는 76%, 핀란드는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국가별 모바일 데이터 추이

(단위: Tbyte)



모바일 브로드밴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스웨덴 전체 이동전화시장 수익의 1/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모바일 브로드밴드 수익은 극히 미미하였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성공적이었으며, 당분간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이동전화 통화량 및 SMS 증가

영국에서는 2011년에 처음으로 이동전화 통화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유리 2012). 이러한 현상은 SMS와 같은 비음성 형태의 통신수단의 활용이 점차 확산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존재한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는 이동전화 통화량이 SMS, 데이터 통화량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2010년에 이동전화 발신 통화량이 유선전화 발신 통화량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지 않아 뚜렷한 유무선 대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서스별 발신 통화량, SMS·MMS 건 수

(단위: 백만 분, 건 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유선전화	34,849	30,272	26,733	22,625	20,106	17,842
인터넷 전화	1,195	1,977	2,124	2,488	2,867	2,745
이동전화	12,642	15,631	18,078	19,897	22,194	23,194
SMS	3,002	6,155	9,877	16,508	17,845	18,543
MMS	70	103	138	156	168	193

구체적으로 이동전화 발신 통화량은 2010년 222억 분에서 2011년 232억 분으로 10억 분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입자당 통화량은 173분에서 1분가량 감소한 172분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데이터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가입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4. 결 어

지금까지 2012년에 PTS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세부 통계지표인 매출, 가입자 수, 통화량 등을 기준으로 검토함으로써 스웨덴 통신시장의 시장현황 및 동향변화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분석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스웨덴은 스마트폰의 도입 이후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함과 동시에 음성 통화량 및 SMS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재까지의 현상만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LTE 도입 등의 영향이 음성 및 SMS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과 더불어 MIM(Mobile Instant Message)

의 확산으로 음성 통화 및 SMS가 잠식되고 있다는 여러 주장(디지털타임스 2012. 8. 22)이 있지만, 스웨덴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음성 및 SMS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해외에서는 MIM을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상대방과의 통신을 위한 수단으로는 아직까지 SMS(Short Message Service)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카카오톡과 같은 파급력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스웨덴은 LTE를 상용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LTE 망에서는 데이터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Vo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더불어 이동망에서 M-VoIP를 일부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통신시장에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스웨덴 통신시장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리 (2012), “2011년 영국 통신시장의 주요 동향”, 《방송통신정책》, 제24권 14호 통권 53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옥준 (2009), “해외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의 성장 전망”, 《방송통신정책》, 제21권 4호 통권45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디지털타임스》 (2012. 8. 22), “카톡 파괴력에 기겁?...대체 무슨 일이”.
- PTS (2012). “The Swedish Telecommunications Market 2011”.